



책 속으로

'공부는 평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이야 방송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알아야 할 것들과 생각의 깊이가 점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시각 정보만이 아닌 감성과 지식의 보고인 책을 다루어보면 어떨까 싶어 방송과 기술에서는 '책 속으로'를 통해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기술인이 직접 읽고, 그 소감을 독자와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면의 부족으로 많은 책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박용후 지음 / 프롬북스 / 정가 14,800원

BMW의 휠은 왜 까매질까?, 강남 사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 애플사가 호텔을 짓는다면? 21세기 신 창조인간으로 진정한 오피스리스워커 (officeless worker)로 재탄생 되길! 관점을 바꾸면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끌어낼 수 있고, 그 가치는 물질화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 온리원(only one)으로 거듭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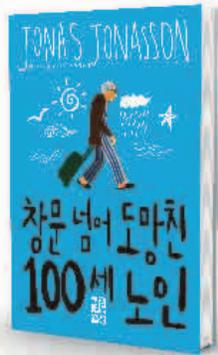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2 아스카·나라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다

유홍준 지음 / 창비 / 정가 16,500원

1993년 제1권 '남도답사 일번지'를 시작으로 2012년 제7권 제주편 '돌하르방 어디 감상'까지 20년 동안 33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고 한국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이번에는 '일본 속의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정수'를 찾아 일본으로 떠난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전 세계 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요나스 요나손 지음 / 임호경 역 / 열린책들 / 정가 13,800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살아온 백 년의 세월을 코믹하고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제 막 백 세가 된 노인 알란이 백 번째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사건과 그가 지난 백 년간 살아온 인생 역정, 두 줄기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이근후 지음 / 김선경 역 / 갤리온 / 정가 14,000원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나이 들기의 지혜.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76세의 나이에 최고령이자 수석으로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는 등 누구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학자가 80년 인생을 살아오며 배운 인생의 통찰을 전달한다.

책을 읽고 나서

+ 권대규 tbs 교통방송 라디오기술부

얼마 전까지 '내리와 인성의 IT 이야기'라는 웹툰을 즐겨보다가 이 웹툰의 작가인 김인성 작가가 쓴 '한국 IT산업의 멸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총 12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있다.

프롤로그 - 진보는 IT에 있다

Chapter 1. 한국 인터넷을 규정하는 키워드 : 촘스러움

Chapter 2. 한국 전자상거래의 극악한 현실

Chapter 3. 인터넷 진화의 역사와 소셜 네트워크

Chapter 4. 한국 인터넷의 미래는 있는가

Chapter 5. 콘텐츠를 죽이는 불법복제

Chapter 6. 이동형 무선인터넷 시대를 거부하는 그들

Chapter 7. 통신, 스마트폰의 역사와 애플의 등장

Chapter 8. 아이폰이 보여준 놀라운 세상

Chapter 9. 인터넷 시대, 진정한 애국이란

Chapter 10. 아이폰, 애플의 다섯 번째 한국 도전

Chapter 11. TV 강국 한국과 스마트TV

Chapter 12. IPTV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은 항상 'IT 강국'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기사가 나온다. IT 분야만 큼은 전 세계가 본받고 싶어 했던 모델이 한국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IT는 어떠한가. 아직도 IT 한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IT 강국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저자인 김인성 작가는 한국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일이 이렇게 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매우 직설적으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함을 알린다.

실질적인 내용은, 먼저 한국 전자상거래의 병폐이자 고질적인 문제, ActiveX로 대표되는 여러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비표준의 극치'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 업체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카드결제라도 한 번 하려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조차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인터넷.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크롬과 사파리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을까.

LTE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인 와이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된 이

유, 그동안 얼마나 비합리적 형태로 IT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현재 한국의 TV 전송방식의 문제와 그 이유... 모두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동사들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사용하는 것을 감지하여 의도적으로 품질을 해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IPTV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도중, 요즘 카카오톡에 의해 이슈가 되었던 '망 중립성'에 대한 언급을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만 없게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이책은 IT가 무엇인지도, 무엇이 약자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다. 저자는 먼저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등장할 용어와 그것의 역사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한 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때 문이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지면이 모자랐을 텐데도 이렇게 설명을 지면에 투자한 것은 아마 한국 IT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 IT가 아직 완전히 뒤떨어진 재기불능의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단,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대기업들이 깨닫는다면 말이다.

먼저 김인성 작가의 웹툰을 본 후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책의 일부 내용(블로거들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서비스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사에 관한 내용 등)이 웹툰에 더 상세히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글이 간결하고 논리적인 전개로 흡입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신세 한탄을 하는 노인과 같은 말투가 아닌, 진심으로 한국의 IT산업을 걱정하는 모습을 책 전체에 걸쳐 느낄 수 있었다.

반면 '한국 IT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국이 아니다!' 라는 설득을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애플 찬가를 쏟아낸다. 아이폰의 단점은 책 전체에 걸쳐 단 한 번 나오며, 별것 아닌라는 투로 이야기한다. 물론 책을 읽어보면 왜 이런 식의 서술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편향적인, 무조건적인 갤럭시 타도를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김인성 지음